

‘완도 탱크’ 최경주 금의환향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할 것이다’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온 미국 PGA프로골퍼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20일 환영행사 참석을 위해 고향 완도를 방문, “머무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자신감 넘친 고향 방문 소감을 밝혔다.

“고향서 에너지 충전...메이저 정상 도전”

군민 환영 카퍼레이드 축제 분위기

“그립 교체 등 과감한 시도 큰 성과”

완도군과 생활체육협의회·골프연합회가 주최하고 완도군민영회가 후원한 ‘최경주프로 완도군 방문 행사’ 참석차 금의환향한 최 선수는 “내가 골프를 이렇게 이 악물고 악바리처럼 칠 수 있는 원동력은 완도의 강한 바람과 태풍 등 고향의 자연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훈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주와 일문일답
-지난해부터 고향방문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고향 방문의 의미는.
▲완도를 화흥리에 위치한 우리집은 상황봉 정기가 어려웠으며 동산과 서산이 맞부딪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 에너지를 얻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 특히 투어 생활동안 느끼지 못한 ‘사랑’을 고향 분들에게서 느낄 수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하면 무한한 에너지가 솟는다. 이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을 치게 된다.

-고향에 와 카퍼레이드를 한 소감과 육군홍보대사를 맡은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고향분들이 사랑을 손을 펼쳐보이는 것을 보고 눈시울을 적셨다. 고향의 따뜻한 환대에 몸뚱이를 모르겠다. 육군 홍보대사를 하게 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그들의 패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그 때로 돌아가 다시 정신수장할 수 있어 좋다.

-올 시즌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정리한다면.
▲지난 7년을 돌아보면 3년은 준비과정이었고, 4년째부터 성과를 올려 통산 6승을 올렸다. 특히 2006년, 2007년 시즌은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기였다. 하지만 부족하다. 무언가 더 채워야 한다.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들뜨지 않고, 스프링과 같은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원력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홍콩대회에서 2위로 올시즌을 마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008년을 더 충실히 준비할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할 시기다.

-올 시즌 사각드라이버나 슈퍼그립 등 새로운 시도가 많았는데.

▲선수들이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성과를 거뒀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다. 특히 슈퍼그립을 사용해서 그동안 퍼팅때 손목을 사용해 공에 스핀이 들어 갔던 것을 제어 할 수 있었고, (퍼팅시)손목을 사용해서 등에 무리가 갔던 것도 좋아지게 돼 스윙에도 큰 도움이 됐다.

-올 시즌 대회 중 가장 의미 깊은 대회는.
▲메모리얼토너먼트다. 1~3라운드까지 단 한명의 기자도 나를 인터뷰 실로 불러주지 않았다. 그냥 KJ는 꾸준히 공을 잘치는 선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와이프가 3라운드 후 당신이 우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 감사하심을 느꼈다. 별들의 잔치에서 우승한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내가 잘쳐서 우승했다기 보다는



20일 오후 완도군이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아들 호준(왼쪽)군과 함께 완도 시가지를 카퍼레이드하며 환영받은 군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대들이 못쳐서 우승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올 시즌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극복하냐.
▲공이 안들어 갈때가 가장 어려울때다. 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공이 안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첫 홀 보기는 살림살이’라는 골프 격언이 있다. 17홀이나 남아있는데 포기하거나 울즈러를 필요가 없다. 항상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메이저대회 우승이다. 5년전 내가 약속했던 세계랭킹 톱10 목표는 지켰다. 이제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특히 마스터즈에는 6회 출전했고, 의미있는 이글을 기록하는 등 남다른 연인이 있다. 4개 대회중 마스터즈 우승을 가장 바라고 있다. /완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최경주 선수가 완도군에 조성된 ‘최경주 광장’에서 김종식 완도군수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기념퍼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향년 이남 환영행사 도중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경주 선수는 “5년전 맹호장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고향 방문 이모저모

불우청소년에 장학금 600만원 쾌척

○최경주 선수는 완도골프장에서 열린 골프꿈나무 레슨에서 이대환(목포고 2)군과 배수인(완도여중 1)양 등 5명의 주니어 골퍼들에게 스트레칭, 그립, 공을 똑바로 치지 않고 사이트 스핀을 서는 방법 등 세가지 포인트를 지도했다.

최 선수는 “(자신은)이제까지 공을 똑바로 쳐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구질을 알고 거기에 맞춰 한쪽 방향을 포기하고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선수는 “경기 때 공을 어떻게 편하게 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많은 연습량이 해답이다”며 “완창 공을 칠 때는 연습 후 왼손을 펼 수 없어 오른손으로 손을 펼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경주 선수의 고향방문을 앞두고 완도군 일원에는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고향 방문을 환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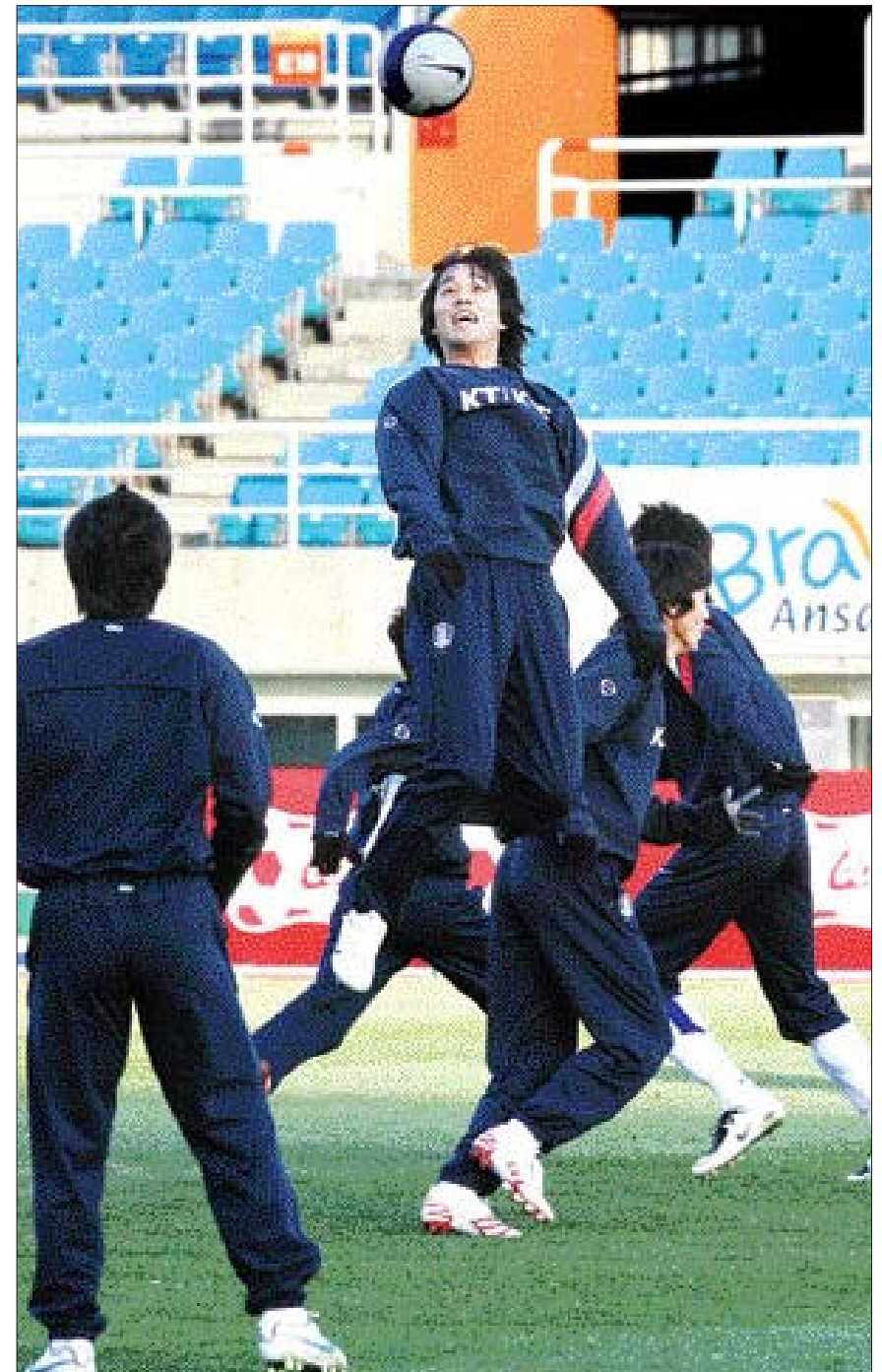
니다” “완도의 자랑! 최경주 프로” 등 최 선수의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 50여개가 걸려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완도군청부터 최경주 광장까지 펼쳐진 카퍼레이드 동안 군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연도에 나와 최경주 선수의 사진을 찍고 “최경주 파이팅”을 연호하며 박수로 열렬히 환영했다. 최 선수도 아들 호준군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군민들의 환호에 답했다.

체육훈장 청룡장 받아

○“기부왕”으로 알려진 최경주 선수는 이날 환영식 행사에서도 최가연(완도여중 2)양 등 6명의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최경주 재단을 만들어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바레인과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마지막 경기를 앞둔 올림픽 축구 대표팀 박주영(가운데)이 20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헤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서동현 투톱

“베이징행 확정 짓자”

박성화호 오늘 오후 8시 올림픽 지역예선 바레인전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마지막 갈림길에 선 올림픽축구대표팀이 박주영(서울)-서동현(수원) 콤비를 앞세워 바레인전 골사냥에 나선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21일 오후 8시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현재 B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3승2무·승점 11)은 바레인(3승1무1패·승점 10)에 승점 1차로 앞서고 있어 이번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해도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박성화 감독은 바레인전을 맞아 4-4-2 전술을 기본으로 박주영-서동현 투톱을 공격 최전방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은 처진 스트라이커로 2선 공격을 지휘하면서 좌우 측면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동료에게 빠르게 볼을 찰라주고, 스스로 돌진해 들어가 골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동현은 우즈베키스탄 원정길에 동행하고도 18명 최종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지만, 신영록(수원)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바레인전에 뛸 수 없어 출전 기회를 잡게 됐다.

박 감독은 20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실시한 마지막 훈련 뒤 “박주영의 파트너로 서동현을 생각 중이다. 내일 아침까지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돌파가 좋은 이근호(대구)와 김승용(광주)은 좌우 측면 날개로 배치돼 상대 수비벽을 크게 흔들여 놓을 전망이다. 코너킥이나 간접 프리킥 등은 김승용이 맡는다. 박 감독은 공격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멀티플레이어’ 이상호(울산)를 조커로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예정이다.



기성용(서울)과 오장은(울산)은 다시 한번 중앙 미드필더에서 호흡을 맞춘다. 바레인의 나이지리아 출신 귀화 공격수를 ‘공공’ 뭉기 위한 포백(4-back)에는 신광훈(포항)이 경고 누적으로 빠짐에 따라 원래 왼쪽 풀백을 담당했던 최철순(전북)이 투입되고, 김창수(대전)는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된다.

중앙 수비는 김진규(서울)-강민수(전남) 콤비가 든든하게 수비 조율을 맡게 되고, 끝판 앞에는 차기 대표팀 수문장을 노리는 정성룡(포항)이 버티게 된다.

골프·완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 회원권 매매, 골프 회원권 임대
골프 회원권 매매: 3,500, 9000, 12,200
골프 회원권 임대: 4,300, 8,200
문의: (062)351-0095